

# 남북관계도 탄력... 본격 경험 추진은 '아직'

북한과 미국이 지난 12일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지만, 북미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발을 함께 내디뎠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가 함께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군사·체육·적십자 회담 줄줄이... 선순환 구조 진입 트럼프,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정부 경험 준비 착수

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진행된 군사적 긴장완화를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이 시작이다. 남북은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8일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협의할 체육회담, 22일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행동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살아 있는 한 북한에 재화가 투입되는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제재해제와 관련, "경제제재는 비핵화가 이뤄지고 핵이 더 이상 안 되면 그때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당장은 제재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조만간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남북경제협력 준비작업에는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은 이달 말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과 산림협력 사업을 위한 분과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경험착수로는 보기 어렵

지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인 5·24조치로 차단된 경험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도 당장은 이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산-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벨트

·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과 산림협력 사업을 위한 분과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경험착수로는 보기 어렵

자환경을 이용한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본국에도 오르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데도 경제력 관점을 넘어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비핵화의 진전이 필수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화로" 광주시, ARS 서비스 실시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화 한 통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납부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ARS(1899-3888)에 연결해 '9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한 후 음성안내 멘트 진행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기존과 같이 계좌이체·가상계좌·신용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을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예금금리와 비교하면 납세자가 느끼는 절세효과가 커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사항을 계속 발굴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 전남도, 승마체험교실 점검 오는 27일까지 10일간 실시

전남도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승마장의 정기 안전점검을 14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전남지역 학생승마체험 승마장 21개소다. 안전요원 배치, 안전장비 구비,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진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학생승마체험 승마장은 말 조련사나 체육 지도자(승마) 자격을 갖춘 1인 이상 안전요원, 안전모·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보유, 손해보험 가입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근산 기자



이낙연 총리, 투·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6·13 지방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행안부의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일 당일 오전 5시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정부서울청사 내에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 동창리·신포 미사일시험장 폐기 가능성

### ICBM 엔진시험장 제거 핵심... 핵 동결 가시적 조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관련 시설 폐기절차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파괴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ABC방송과 인터뷰에서는 "그들은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추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의 제거

에 나선다면 이는 핵실험장 폐기에 이은 조치로, 핵·미사일 동결의 가시적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군 당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대형 로켓엔진시험시설과 대형 발사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인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장,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등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시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에 장착되는 로켓엔진 시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구성시 이하리에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의 지상 시험용

발사대를 폐기한 바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13일 "한미가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미사일시설에서 아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폐기 예상 미사일시설로는 ICBM급 미사일 엔진시험이 이뤄진 동창리 로켓시험장과 장거리 로켓발사대를 꼽을 수 있다. 또 함경북도 동해안의 신포 조선소 인근에선 주로 SLBM 시험발사와 엔진시험이 이뤄진다.

평양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도 폐기대상으로 지목된다. 이곳에서는 그간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함께 엔진시험이 진행돼 왔다.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재개, 언제쯤 이뤄질까

### 입주기업들 "사전점검 방북... 정부 의지에 달려"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조기 방북을 위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국제사회의 북한제재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가 첫 번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가동 전면 중단 이후 5차례 방북신청을 했지만 모두 유보됐다. 마지막으로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2월 26일에도 방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3일 "방북신청은 돼있고 정부 결정만 남았다"며 "우리로서는 방북준비는 돼있고 정부가 허가해주면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조기방북으로 공단시설을 점검해 연내 재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선 북한 제재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전이라도 우선 방북해 시설 점검부터 해야 정부와 협의해 연내 공장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 TF 단장도 "입주기업들은 공장가동을 위해 선반도시 시설점검을 위한 조기방북이 필요하다"며 "방북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남북 경제교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가능하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상무는 "북한 제재완화가 진척되지 않아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예외를 뒤편을 허가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오늘 폼페이오·고노 접견

### 청와대서 '포스트 북미회담' 공조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차례로 접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의 문 대통령 예방이 14일 오전 9시로 예정돼 있고, 오후 3시에 고노 외무상의 예방일정이 잡혀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 각각 만나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의 면담에서 역시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채널로 진행될 남북 협상과정에서 한일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에메·부동산·광고·영원·분양·모임

· 광고료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자치평론**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전남매일 월간 자치평론  
구독문의 062) 720-1006

■상표등록번호 40-029026 ■영양성분표 제2010-00026호 ■동부회 1억 생선물산신탄탄보통-중권번호 44010002705000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드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역시!

**"씨알-렉스"**

제조원(주)농협법인 (주)고려홍삼공사

148,000원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출시기념 특별행사

080-374-5046 보람약품 062) 528-6662

NAVER 드림꽃도매 검색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경조화환 6만원**

시의 기타외지역 추가비용 발생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9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됨 (신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사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